

## 에도(江戸)문학의 다양성

- 「살에 붙은 가면」을 통해 본다 -

노부히로 신지

고려대학교(대한민국 서울)일본연구센터 주최 국제심포지움 「일본근세문학 · 문예의 중심과 주변(周縁)」기조강연(2009년 9월 28일)

지금 소개받은 노부히로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김포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왔습니다만, 서울이 아름답게 변모하여 놀랐습니다. 쓰레기장으로 황량했던 난지도가 녹음이 우거진 공원과 월드컵 경기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산의 나무가 일찍이 아름다웠는데(牛山之木嘗て美なりき)’(告子章句上)라며, 우산(牛山)의 황폐함을 탄식했던 맹자에게 오늘날의 난지도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필시 ‘난지도, 지금은 아름답구나(蘭芝島、今は美なり)’라고 한민족의 인의(仁義)의 마음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내일은 땅속을 파낸 청계천과 첫 대면을 할 예정입니다. 그 청계천 위의 고속도로를 공용 여권을 소지하고 달렸던 것이 1986년의 일, 이십년도 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 출강하여 최재철 교수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호의 덕에 추억 많은 십 수 개월을 지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해외에서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신선하고 놀라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날의 연속을 청춘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당시에 이미 47세, 자식이 2명이었던 너무 늦은 청춘이었습니다.

서울 체재 중 기억에 남는 일 하나가 이 고려대학교에 초청 받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강연 당일, 감기가 들어 연기할 수밖에 없는 실례를 범했습니다. 열이 높

았기 때문에 최재철 교수가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선생님이 ‘엉덩이를 내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감기와 엉덩이의 상관관계를 몰랐지만 거역할 수 없어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찰싹’하고 엉덩이를 때리는 것입니다.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바로 ‘끝났습니다’라고 해서 더 깜짝 놀랐습니다. 주사를 맞은 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탁 맞은 것은 아팠지만, 일본의 경우 주사는 보통 팔에 놓습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은 ‘아플 것입니다’라고 경고하지요. 환자는 바늘이 ‘훅’하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늘이 들어온다, 주사액이 들어간다. 끝났다. 아프다.’ 이런 순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양국 문화의 차이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런 경위가 있는 후에 겨우 강연이 실현되었습니다. 장소는 이곳과는 다른 문과대학의 대강의실이었습니다. 그 강연을 들었던 사람이 당시의 학생, 지금의 최관 교수입니다. 최관 박사는 지금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일본학자가 되어 이 국제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개무량합니다.

또한 최관 교수가 십년 정도 전에도 초대해 주어, 이번 심포지움에 함께 참가하고 계신 최경국 교수나 이준섭 교수와 여행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 때, ‘어디에 가고 싶은가?’라고 물으시기에 우선 하회마을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86년에는 아이들과 함께여서 별로 여행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직 인천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인촌(仁村) 기념관입니다만, 일본인에게 ‘천’과 ‘촌’의 구별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전 여름방학에 가족과 함께 제주도와 경주를 방문한 것이 큰 여행경험이었고, 그 때도 김순희 교수 등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최고봉인 한라산에 오른 것이 저의 자랑거리입니다. 하회에 가보고 싶다고 한 것은 물론 가면극의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은 「살에 붙은 가면(肉付きの面)」이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서, 일찍이 『에도분가쿠(江戸文学)』20호(1999년 6월 간행)에 「렌노 전설과 시키테이 산바 작 『가타키우치 요메오도시다니』(蓮如伝説と式亭三馬『復讐娶詭谷』)」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 개정판이라는 생각으로 강연에 임합니다만, 모쪼록 한국의 여러분들께 많은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이 「살에 붙은 가면」은 일본의 각지에 분포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면을 썼더니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아(저는 가면불리담(仮面不離譚)이라고 부릅니다), 신불

(神佛)의 힘으로 겨우 떼어내게 되었다는 것이 기본형이고, 특히 렌노 스님(蓮如上人 : 1415년-1499년)의 요시자키(吉崎 : 후쿠이 현(福井県) 아와라 시(あわら市)) 포교시절(1471년-1475년)의 법력담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렌노에 귀의한 아들부부가 요시자키에 다니는 것을 방해하려고 시어머니가 도깨비 가면을 쓰고 며느리를 놀라게 하는데, 그 가면이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키 게이코(関敬吾)의 『니혼 무카시바나시 다이세이(日本昔話大成)』8권(1979년 8월, 角川書店刊)에는 아르네 톰슨(Aarne-Thompson)이 분류한 화형(話型) 「교활한 목사(狡猾な牧師)」의 예화가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남자가 금을 발견한다. 탐욕스런 목사가 양의 가죽을 쓰고 악마인척 하며, 그 남자를 위협하여 금을 뺏고자 한다. 그런데 그 목사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양의 가죽을 벗겨낼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는 구미(歐美)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최인화 박사의 『한국 설화 연구(韓國昔話の研究)』(1976년 9월, 弘文堂刊)에서는 「살에 붙은 가면」에 대응하는 한국의 옛날이야기를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嫁と姑との葛藤)」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서로 증오하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있는데, 그 옆집 사는 할머니가 ‘시어머니를 빨리 죽이려면 밤을 먹이면 된다’고 며느리에게 가르쳐준다. 며느리는 할머니가 가르쳐주는 대로 실행했는데, 사실 밤은 시어머니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었고, 이렇게 매일 밤을 먹여주니 좋은 며느리라고 말하게 된다. 결국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미워하던 것을 반성하게 되었다.

이는 『니혼 무카시바나시 다이세이(日本昔話大成)』에서는 「시어머니와 독살(姑と毒殺)」이라고 제목이 붙은 화형에 속하는데, 「살에 붙은 가면(肉付き面)」(‘의’를 표기하지 않습니다)의 다음에 옵니다. 고단(講談) 「데라이 겐케이(寺井玄溪)」(「기시가이덴(義士外伝)」에 있음)에서는 의사인 겐케이가 독약이라고 속인 가루 약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원만해졌고, 라쿠고(落語) 「귀향

(里婦り)」에서는 딸에게 밀가루를 주는 역할을 친정아버지가 맡습니다. 분명 렌노에 관련된 전승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이 포함되지만, 한국에서는 「살에 붙은 가면」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정내통(丁乃通)의 『중국민간고사유형색인(中國民間故事類型索引)』(1986년 7월, 中國民間文芸出版社)을 실마리 삼아 검색하니, 977년에 성립된 『태평광기(太平廣記)』433권의 「승호(僧虎)」(『고승전(高僧傳)』)가 나옵니다. 즉 호랑이의 가죽을 쓰고 사람을 위협하고, 그 사람이 도망갈 때 버린 것을 얻어 생활하던 스님이 결국은 호랑이가 되어버린 이야기로 「교활한 목사」와 유사합니다. 구미와 두 이웃나라에도 있는 「살에 붙은 가면(肉付きの面)」과 비슷한 이야기가 가면극의 나라, 한국에는 없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없다면, 왜 없는 것인지 아시는 분께 가르침을 청하고자 합니다.

한편 노무라 게이코(野村敬子) 씨에 의하면, ‘요시자키 고보(吉崎御坊, 즉 렌노 스님)가 교화포교를 위해 고안한 「살에 붙은 가면」은 오래된 문예요소와 이에 더해 후쿠이현(福井県)의 『가면님(お面さま)』행사나 신앙기반, 특히 이 지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지닌 하쿠산(白山) 신앙을 흡수하여 구성되었다고 합니다(주1). ‘오래된 문예요소’에 관하여 후술하고, 요시자키 고보는 1471년 7월 27일에 렌노가 창건(創建)합니다. 그러난 1506년 8월 6일, 에치젠(越前) 지방관 아사쿠라 사다카게(朝倉貞景) 군의 세력에 의해 격파되었습니다. 현재는 정토신종 혼간지 파(本願寺派) 요시자키 절(吉崎寺 : 아와라 시(あわら市) 요시자키 2초메(丁目) 902)과 신종 오타니 파(大谷派) 간케이 절(願慶寺 : 요시자키 1초메 302)양쪽에 「살에 붙은 가면」이 전해집니다. 원래는 하나였지만 다른 곳에도 있고, 합쳐서 몇 곳에 전해져 온 것 같습니다(주2). 당연히 신도들은 의심하였을 텐데, 그 때 스님의 행동거지가 마쓰오카 유즈루(松岡譲)의 『법성을 수호하는 사람들(法城を護る人々)』중권(1925년 6월 간행. 소견본(所見本)은 1927년 3월, 第一書房刊)에 잘 묘사됩니다.

며느리를 위협하는 가면은 결코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한 개뿐이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안 되지요. (중략)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세상의 시어머니라는 모든 시어머니, 여자라는 모든 여자, 인간이라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모두 하

나씩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여러 개의 가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은 1933년 8년 10월 20일, 벳푸(別府) 항로를 다니던 배 이지마마루(居島丸)와 함께 바다 속에 사라진 겐케이 절 부주지가 지녔던 가면 때문입니다. 같은 달 27일 자 오사카아사히(大阪朝日) 신문에 의하면 바다에 빠진 것은 실은 모조품이고, ‘진품은 본산(本山)의 허가가 없는 한 다른 곳에 반입하지 않는다’는 주지의 이야기를 게재하고 있습니다(주3). 참고로 요시자키를 해당지역에서 읽는 방법은 ‘옷사키(よっさき)’라고 합니다(주4). 이 렌노의 포교활동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것이 예로부터 하쿠산(白山) 신앙으로(주5), 이는 이시카와(石川) 기후(岐阜) 후쿠이(福井) 세 현(県)의 경계에 선 명산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산악신앙입니다. 하쿠산의 이름은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하얗고 위엄 있는 산의 모습에서 유래하고, 고젠가미네(御前峰, 2702m)의 시라야마히메(白山比咩) 신사의 오궁(奥宮)이 모셔져 있습니다. 진종(真宗)의 입장에서 료테이(了貞)가 집필한 『니주요하이 준하이 즈에(二十四輩順拜図会)』전(前) 2권(1803년 간행)에는 귀녀(鬼女)의 가면을 쓴 시어머니가 ‘하쿠산 권현(白山権現)의 명을 받아 지금 여기에 나타났다’라고 하며, 렌노 있는 곳에 드나드는 며느리를 위협하였다고 합니다만, 1월15일 난조 군(南条郡) 미나미에치젠초(南越前町) 소마키마타(杣木俣)의 하쿠산 신사에서 행해진 가면 축제는 가면의 표정으로 일년의 길흉을 예감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표정이 온화하면 풍작일 것이라는 식) 신께 바치는 행사라고 합니다.

또한 2월 11일 가쓰야마 시(勝山市) 무라오카초(村岡町) 다쓰나미 구(滝波区) 구장집에서 행해지는 「가면님(お面様)」은 노옹의 세 가면, 즉 오키나(翁)·조(尉), 산반소(三番叟)를 기리고, 많은 복과 풍작을 기도드리는 행사입니다만(주6), 후쿠이 현 오노 군(大野郡) 교육회의 『후쿠이 현 오노 군 지(福井県大野郡誌)』(1912년 6월 간행)에 의하면, 1719년에 성립한 「엔기(縁起)」에는 1587년 1월 11일에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소개된 『촌독고(村読稿)』에는, 헤이센 절(平泉寺)에서 흠친 가면을 쓰고 춤을 춘 자가 ‘얼굴 가죽에 들러붙어 가면을 벗을 때 아팠고(顔皮に着き張て脱ぎしに顔を傷く)’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헤이센 절은 하쿠산 신앙의 일대 거점으로, 메이지(明治) 원년(1868년)의 신불분리령(神仏分離令)에 의해 하쿠산 신사(白山神社 : 가쓰야마 시(勝山市) 헤이센지초(平泉寺町))라고 이름을 바꾸고, 주지승이 환속하여 히라이즈미(平泉, 즉 히라이즈미 기요시(平泉澄) 박사의 본가. 주7)라는 성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문학작품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고부 갈등에 의해 귀녀가 되는 예입니다.

- 게이세(慶政イ) 『간쿄노 도모(閑居友)』(1222년 성립) 권 하의 3  
「깊은 원한을 지닌 여성이 산 채로 도깨비가 되는 일(うらみふかき女いきながら鬼になる事)」(주 8)  
질투에 의해 남성을 죽이고 빨이 나서 도깨비가 된 여성이 울면서 참회한 후, 불 속에 뛰어 들어 타 죽음.
- 「쓰루기노마키(剣巻)」(야시로본(屋代本)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 『겐페이조스이키(源平盛衰記)』, 1610년판 고활자본(古活字本) 『다이헤이키(太平記)』등(주9)  
질투가 심한 공경(公卿)의 딸이 기부네 신사(貴船社)에서 참배하고, 얄밋다고 생각하는 여자를 죽이고 싶어 '산 채로 도깨비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원을 드린다. 얼굴에는 붉은 먹으로 그리고 몸에는 단(丹)을 발라, 21일간 우지 강(宇治川)에 몸을 적셔 원대로 도깨비가 된다.
- 가나조시(仮名草子) 『일곱 명의 비구니(七人比丘尼)』(1635년 간행) 중권 5 (주 10)  
기쿠이도노(きく井殿)의 아내는 서울에 간 남편이 아름다운 여성과 동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질투심에 등에는 비늘, 이마에는 빨이 나고,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입은 찢어졌으나, 수도승의 구원으로 원래 모습을 되찾는다.
- 쓰지도 히후시(辻堂非風子) 작, 우키요조시(浮世草子) 『다마스타레(玉すたれ)』(1704년 간행) 권2의 3, 「아시나 시키부의 아내가 귀녀로 변한 일(芦名式部が妻鬼女と成事)」(주 11)

아시나 시키부 다이스케(芦名式部大輔)가 궁전의 경호를 마치고 오미(遠江) : 시즈오카 현(静岡県) 서부)로 돌아갈 때, 몰래 데려온 첩이 임신을 한다. 이를 알게 된 처는 얼굴이나 신체에 연지를 바르고, 결국 출산을 한 첩을 물어 죽이고 깊은 산에 도망간다. 첩의 자식이 성장하여 출가한 후, 도깨비가 산다는 산에 들어가 독경을 하자 계모의 뽕은 떨어져 원래 모습이 되고, 곧 비구니가 된다.

- 미야코노 니시키(都の錦) 작, 우키요조시 『도세이 지에카가미(当世智恵鑑)』 (1712년 간행. 쇼토쿠(正徳)2) 권4의 1 「에도의 질투하는 여인(江戸の疾婦)」 (주 12)

에도(江戸) 간다(神田)의 후키타야 세이베(吹田屋清兵衛)가 이세(伊勢) 신사에 참배하고 돌아왔는데, 몰래 데려온 첩이 임신을 했다. 이를 알게 된 부인은 얼굴에 연지를 바르고, 결국 출산을 한 첩을 물어 죽인 후, 료고쿠 탑(兩國塔)에서 물에 뛰어들어 자살한다.

틀림없이 『다마스타레』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질투에 의해 귀녀가 되는 노(能) 작품에서 뽕이 두 개인 반야(般若, 「葵上」)나 뽕이 없는 하시히메(橋姫, 「鉄輪」)를 보겠습니다. 하시히메를 이용하는 것은 철륵(鉄輪)에 붙인 횃불(松明)이 뽕처럼 보였기 때문일까요? 「가나와(鉄輪)」의 줄거리를 아래에 듭니다.

남편에게 버려진 도읍지 여인이 원한에 사무쳐 기부네 신사에서 축시(丑時)에 기도(원한이 있는 사람이 신사에서 지푸라기 인형에 못을 박으며 드리는 기도인데 새벽 1사에서 3시 사이에 드렸다고 함.)를 드리고 있자니, 신사의 관리인이 나와 ‘횃불을 붙인 철륵을 들고 얼굴에 붉은 색 안료를 바르고, 붉은 옷을 입고, 화난 마음을 지니면 소원은 이루어진다.’는 신탁(神託)을 듣는다. 한편 남편은 아베노 세이메이(安部晴明)로부터 ‘여성의 원한 때문에 오늘 밤 중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받았는데, 부인이 귀녀가 되어 나타나 남편을 데리고 가고자 하는데, 여러 신이 쫓아와서 도망간다. 오토기조시(お伽草子) 「가나와(かなわ)」에서는 세이메이의 항복수법(降伏修法)에 의해 남편에 대한 원한을 풀지 못한 귀녀는, 그 후 남녀로 자유자재로 변신하여 해를 끼쳤으므로, 이에 그녀를 퇴치하라는 칙명이 내려집니다. 와타나베노 쓰나(渡辺綱)나 사카타 긴토키(坂田金時)의 큰 칼의 위세에 패배한 귀녀는 ‘왕성을 지키는 신이 되리라(王城の鎮守たらん)’고

서약하고 물 속에 빠집니다.

지금까지 얼굴을 붉게 칠한다든지 해서 귀녀가 된 예나 가면을 쓰고 귀녀가 되는 노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하에서는 가면이 벗겨지지 않게 되는 작품을 열거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근세문학의 다양성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머느리를 위협하는 살에 붙은 가면의 유래(嫁威肉附之面由来)』(요시자키 절. 1610년 간행), 『머느리를 위협하는 살에 붙은 가면의 기원(嫁威肉附面緣起)』(겐케이 절. 1611년 간행)의 기원담이나 그림 풀이(絵解き), 지지(地誌) 종류는 특별히 들지 않습니다. 그림 근세문학에 앞서 우선 오토기조시의 두 작품의 예를 들고, 이어서 근세 작품으로 들어갑니다.

○ 아카기 문고본(赤木文庫本) 『이부키야마 슈텐도지(息吹山酒典童子)』(주 13)  
사가 천황(嵯峨天皇)의 시대에, 엔랴쿠 절(延暦寺)에 슈텐도지(酒典童子)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자가 있었는데, 스스로 만든 가면을 쓰고 도깨비 춤을 쳤다. 술에 많이 취해 가면을 벗지 않고 잤는데, 그대로 붙어버렸다. 그 모습이 무서워서 다가오는 이도 없어 히에이 산(比叡山)에서 추방당했다. 오에 산(大江山)에 숨어 살게 되었다.

○ 아카기 문고본 『이소자키(いそぎき)』(주 14)  
시모쓰케(下野)의 사무라이 이소자키도노(いそぎき殿)는 가마쿠라(鎌倉)로부터 새로운 부인을 데려와 새로 지은 집에 살도록 한다. 전 부인은 새로운 부인의 얼굴이 보고 싶어 남편이 부재중인 틈을 타 사루가쿠(猿楽, 헤이안(平安) 시대의 민중예능)의 도깨비 가면을 빌린다며 가 보았는데, 새로운 부인은 열 예닐곱 정도 되는 미녀였다. 전부인은 갑자기 질투심이 생겨 방에 새 부인을 난입하여 때려죽인다. 전 부인은 귀가 후 가면이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아 산에 들어가서 숨으니, 절에서 공부하는 학승이 된 자식이 이 번고를 듣고 닛코(日光)에서 하산했다. 어머니에게 좌선을 권하니 삼칠일 이내에 그 모습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본 작품에 관해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나카타 구마구스(南方能楠)의



「이소자키에 관하여(磯崎に就て)」의 발견입니다. 무서명인 채 오래토록 잊어졌던 그 원고가 공표된 것은 나카세 요시카즈(中瀬善一) 『제자에게 보내는 편지-우에마쓰 시게루에게(門弟への手紙-上松菘へ)』(1990년 11월, 日本エディターズスクール出版部刊)에서입니다. 만약 이 글이 그의 전집(全集)에 실렸다면, 「살에 붙은 가면」 연구는 훨씬 더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원고에서 알게 된 지식은 대단히 많고 일일이 기술하지는 못합니다만, 부디 읽어봐 주십시오. 한편 이 서적에 의해 알게 된 근세초기에 성립한 노로서 「이소자키(磯崎)」(사사키 노부쓰나(佐々木信綱) 『신요쿄쿠 하쿠반(新謡曲百番)』 1912년 2월, 博文館刊)가 있습니다. 동명이면서 다나카 마코토(田中允) 『미간행 요쿄쿠슈(未刊謡曲集)1』속1(1963년 9월, 1988년 9월, 古典文庫刊)에 게재된 별곡입니다.

이하는 에도 시대를 중심으로 한 작품군입니다.

- 우지 카가노조(宇治加賀掾), 조루리(浄瑠璃) 「젠카이 쇼닌(源海聖人)」1681년-1684년경.

무사시(武蔵)에 사는 후지와라 다카미쓰(藤原隆光)에게는 부인인 하나고토부키고젠(花寿御前)과 유녀출신의 첩 쓰키코토부키노마에(月寿の前)가 있었고, 하나코토부키고젠에게는 남동생 하나와카마루(花若丸), 쓰키코토부키에게는 아들 쓰키와카마루(月若丸)가 있었다. 집안을 누가 이을 것이냐 하는 경쟁심 때문에 하나코토부키의 어머니는 쓰키와카마루를 미워하여 살해를 명하지만, 오히려 그를 대신하던 하나와카마루가 목숨을 잃고, 쓰키와카마루가 뒤를 쫓는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쓰키코토부키 때문이라고 하여 자식의 원수라며 도깨비 가면을 쓰고 위협하고 쇠 지팡이로 쳐서 죽인다. 그 후에 가면이 떨어지지 않아 귀녀가 되는데, 젠카이 쇼닌(源海聖人:陸光)의 권유로 염불을 외우자 「청승(請僧:법회에 참여하는 승려)」의 모습이 되어 빛이 났다. (4·5단 짜)

- 쇼메이도 후카쿠(松明堂不角), 쓰키나미코텐 쓰케쿠슈(月並高点付句集) 『와카미도리(若みどり)』(元禄四年刊. 1691)

밤이 깊어질수록 / 더욱 무서워지는  
질투하는 사람은 / 살에 붙은 반야가면.

- 베이게쓰안(瓶月庵) 『가사즈케 하이카이 누리가사(笠付俳諧ぬり笠)』(元禄十四年刊. 1697. 주15)  
부끄럽구나 / 쓰니 떨어지지 않는 / 도깨비 가면.

호조 단스이(北条团水)의 작품입니다.

- 가부키(歌舞伎) 「우스유키주조히메(薄雪今中将姫)」(1700년 3월, 에도 야마 무라 좌(山村座) 주16)  
가초노마에(花鳥の前)는 소노베 에몬(蘭部衛門)이 부부의 약속을 어긴 것에 원한을 품고 신전에 걸려있던 반야의 가면을 썼더니 벗겨지질 않았다. 이에 불문에 들어간 에몬이 가사(袈裟)로 (가초노마에를) 쓰다듬으니 반야의 가면이 떨어졌다. (3단 짜)
- 니시자와 잇푸(西沢一風) 작, 우키요조시 『온나다이묘 단젠노(女大名丹前能)』(1702년 간행, 元禄十五)  
나리히라(業平)로 변장한 젊은 단젠노스케(丹前之助, 실은 남색을 좋아하는 노인)에게 마음이 끌린 70세의 노녀가 있었다. 그녀는 손주가 갖고 노는 배우의 가면이라고 착각하고 도깨비 가면을 썼는데, 자기 뜻을 이루기는커녕 가면이 벗겨지질 않았다. 하코네 삼사 권현(箱根三社権現)에게 탄원하고, 자식과 머느리가 광명신진언(光明信真言)을 읊고 있는 사이에 가면이 떨어진 다.(권6)
- 니시자와 잇푸(西沢一風) 등 합작, 조루리(浄瑠璃) 「호조 도키요리 기(北条時頼記)」(1726년 4월8일, 오사카 도요타케 좌(豊竹座) 초연)  
사노 겐토타(佐野源藤太)에게 속아 심한 질투를 하게 된 다마토요히메(玉豊姫)는 에노시마(江ノ島) 변재천(弁財天) 신전에 걸린 귀녀(鬼女)의 가면을 쓰고 호조 도키요리(北条時頼)의 아이를 임신한 쓰키사요히메(月小夜姫)를 밤마다 위협하는데, 결국 가면이 벗겨지지 않게 된다. 상투를 자른 도키요리가 경문을 읽자 가면이 벗겨진다. (4단 짜)

오카모토 잇포시(岡本一抱子: 지카마쓰 몬자에몬(近松門左衛門)의 문하생, 의사)가 쓴 전기 『호조 도키요리 기(北条時頼記)』(1691년 간행)에 의한 작품입니다.

다만, 이 전기에서는 심하게 질투한 나머지 귀녀가 됩니다. 삼십 수년 후에는 살에 붙은 가면으로 바뀌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또한 야지마 슈호(矢島倭浦) 『혼초고쿠고(本朝国語)』(1763년 간행) 권5의 31 「에노시마의 가면(江ノ島の面)」에서는 에노시마 변재천의 문에 걸린 귀녀 가면은 도키요리의 처가 첩을 덮치고자 했을 때 쓴 것이라고 합니다.(야나기타 구니오(柳田国男) 「해를 안은 이야기(日を抱く話)」 『여동생의 힘(妹の力)』 『定本柳田国男集』9. 1962년, 筑摩書房刊)

- 도사 쇼조(土佐小掾), 조루리(浄瑠璃) 「사쿠라 고마치(桜小町)」(1703년 성립, 간행년도 미상. 주17)

나리히라(業平)는 가사네를 유혹하는데, 가사네는 아내가 되지는 않겠다고 거부한다. 나리히라가 유녀 미야코노토리(都鳥)와 다정하게 지내고 있는 사이에 가사네는 미이 이나리(三井稻荷)에 참배하고, 이때 보인 가구라(神楽) 행사 때 사용하는 악녀의 가면을 쓰고 나리히라의 마음이 유녀에게서 떠나길 원했는데, 그 가면이 벗겨지지 않게 되자 미치게 된다. 도도카네이(とど鐘鑄)의 권화(勸進)의 승에게 살해당한다. (제3)

- 시키테이 산바(式亭三馬) 작, 고칸(合巻) 『가타키우치 요메 오도시다니(復讐娶説谷)』(1804년 간행)

가.(전편) 호조 다카토키(北条高時)의 집권(1316년-1326년) 시절에, 중신 나가사키뉴도(長崎入道)의 첩 미도리노마에(緑の前)는 무예를 좋아했다. 그녀를 본받아 시녀들도 열심히 했는데, 그 중 하나자키(花崎)와 다카시나(高科)가 특출났다. 금고지기인 쓰루사와 곤페이(劍沢権平)와 아사세 가즈마(浅瀬数馬)는 각각 ‘하나자키를 아내로’라며 탄원서를 내지만, 미도리노마에는 가즈마의 원을 들어준다. 그러나 가즈마의 계모 나루미(鳴海)는 다카시나(高科)의 참언을 믿어 하나자키를 위협하고자 도깨비 가면을 쓰고 몸을 숨겼는데, 쓰루사와 곤페이가 수상한 자라고 여겨 찢려 죽인다.

나. (후편) 「요메오도시다니(よめおとし谷)」 지명(地名)의 유래. 「살에 붙은 가면」에 관해 언급한다.

‘가’는 「살에 붙은 가면」이 되지는 않습디다만 예로 들었습니다. ‘나’는 앞에서 언급한 『니주요하이 준하이 즈에(二十四輩巡拜図会)』전편(1803년 간행)에 의

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하야미 순쇼사이(速水春曉齋) 작, 요미혼 『에혼 고칸덴(繪本孝感伝)』(1808년 간행. 주18)

권8 「요메오도시다니 유래 이야기(嫁歳谷来由の話)」속에 지명의 유래로서 『니주요하이 준하이 즈에』에 의해 렌노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미혼의 저본이라고 생각되는 난부(南部) 가문에 대한 실록체 소설 『아다우치 요메오도시다니 전(敵討嫁威谷伝)』(사본. 난부 가문 구장(旧蔵). 八戸市立図書館蔵 주19)의 권7 「요메오도시다니의 유래(嫁威谷来由の事)」은 다음과 같은 전개로 렌노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계곡을 사이에 두고 살았던 양가의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친정에 돌려보낸다. 며느리가 몰래 아들에게 드나드는 것을 눈치 챈 시어머니는 귀녀의 가면을 쓰고 위협하고자 한다. 며느리도 검은 머리를 휘날리며 거울을 가슴에 달고 하얀 천을 끌고 다니는 무서운 모습이었으므로 서로 놀라 기절한다.’ 이를 가모(蒲生) 가문의 내분과 엮어 다쓰오카 만사쿠(辰岡万作)가 만든 가부키 「유키노나도코로 요메오도시다니(雪国嫁威谷)」(1799년 8월8일부터 오사카에서의 상연)는 렌노전, 혹은 「살에 붙은 가면」과도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 전년도가 렌노 삼백 번째 기일이므로 이와 관련된 기획이었지만, 두 번째 상연 교겐의 대본 예정이 반 정도 늦어졌던 점과 렌노와 관계없는 점은 관련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 20)

- 도자이안 난보쿠(東西庵南北) 작, 고칸(合巻) 『정통 요리사 가시쿠의 차림포(通人料理かしくの献立)』(1827년 간행)게이사이 에이센(溪齋英泉) 그림.

호조 야스토키(北条泰時)가 집권할 때, 간자키(神崎)의 유녀 가시쿠(かしく)는 해적 수령인 야미조(闇蔵)와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야미조가 다른 여성에게 마음을 주고 어딘가로 사라졌기에, 질투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 가시쿠는 야미조의 뒤를 쫓아 결국 에치켄(越前) 기노메(木の目) 언덕의 황폐한 집에 살게 되는데, 낮에는 그 미모로 사람을 홀리고 밤에는 귀녀의 가면을 쓰고 사람을 죽였다. 그러나 가면이 벗겨지지 않게 된다. 잇펜 스님(一遍上人)의 제자 사이넨(西念)이 염불을 하여 가면이 벗겨진다.

야미조는 7대 이치카와 단주로(市川團十郎), 가시쿠는 5대 이와이 한시로(岩

井半四郎) 등의 얼굴과 닮은꼴입니다.

- 스코도 쇼로(素行堂松鱸) 편, 『교쿠 무메야나기(狂句むめ柳)11』(1836년 간행, 天保七)  
 시어머니의 / 장 속 공개는 / 살에 붙은 가면 같다                      도호(土芳)
- 『야나기다루(柳多留)』152편, 1838년 6월 2일 개최 「센쿄 거사 추선회(扇橋居士追善会)」  
 벗겨져 버렸으니 / 면목 없구나 / 며느리 위협용 가면                      산초(三朝)

오카다 산멘시(岡田三面子) 『일본사전 센류 교카(日本史伝川柳狂歌)』(나카니시 겐지(中西賢治) 교정, 1973년 5월, 古典文庫刊)에는 ‘젠코 절(善光寺)’의 향 6에 「살에 붙은 가면」이 있고, 그 외에도 열 수 정도를 드는데 여기서는 생략한다.

- 조루리 「신란 스님(親鸞上人) 렌노 스님(蓮如上人) 겐노 스님(顯如上人) 미타혼간(弥陀本願) 삼신기(三信記)」(1886년 5월 8일부터 33일까지, 오사카 히코로쿠(彦六) 상연. 주21)

메이지 이후의 항목에서 다루는 편이 좋겠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렌노 사백 주기는 1898년에 해당됩니다만, 그 13년 전인 1885년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야마시나 베쓰인(山科別院)에서 예비 수련했던 것과 관련하여 행해진 상연이겠지요. 그 대강의 줄거리를 소개합니다.

주라쿠 촌(十楽村)에 사는 농부 요시다 요사지(吉田与三治)는 원래는 무사였는데, 미쿠니(三国)의 유녀를 납적하여 부인으로 삼았고, 그 부인의 이름은 오키요(お清)였다. 아이 요시마쓰(由松)의 기일이기에 ‘숨을 고승께 바쳐주십시오.’라고 오키요가 법회에 함께한 이들에게 부탁한다. 그 후 귀가한 노모가 숨이 없다고 며느리를 때리고 이혼을 시켜 내보낸다. 여기에 요사지가 돌아와서 오키요를 데려와 어머니를 추궁하자 잠든 척 한다. 그 사이에 부부는 요시자키의 고승에게 간다. 실은 노모는 잠든 척 한 것이었는데, 전해지는 가면을 쓰고 낫을 들고 홀로 돌아오는 오키요를 ‘나는 하쿠산 권현의 사자다.’라고 위협한 후, 낫으로 죽여 사체를 오래된

연못에 던진다. 그런데 귀가하여도 가면이 벗겨지지 않았고, 곧 요사지도 짐으로 돌아왔다. 이때 사람들이 오키요의 사체를 들고 온다. 요사지가 보니 부인의 몸에는 베인 상처가 없고 부적 주머니의 이름 있는 곳이 찢어져 있어, 오키요는 소생했다. 자책감에 노모는 낮으로 자살한다. 이때 렌노가 금빛과 함께 나타나, ‘노모는 불문에 드시오. 함께 염불을 외우시오.’라고 이름을 부르자마자, 가면이 벗겨지고 임종을 맞이한다. 부부에게는 염불을 소홀히 해서 안 된다고 하고, 렌노는 상경한다.

신란 스님(親鸞上人)을 비롯하여 세 명의 고승 이름을 당당히 들고 있어, 시대의 변화를 통감합니다. 총 12단 중 렌노와 관계되는 것은 여섯 단입니다. 주안점인 13단 째는 오늘날에도 머느리 위협하기(嫁威し) 단으로서, 마쿠와 극단(真桑文楽: 기후 현(岐阜県) 모토스 시(本巢市) 가미마쿠와(上真桑))에서 상연되었습니다. (참고로 마쿠와의 명산품이 참외입니다. 한국의 참외는 맛있지요. 공기가 상쾌한 점과 매운 맛에 길들여진 입 안을 새롭게 하기 때문일까요?)

오키요를 미쿠니의 유녀로 설정한 것은 렌노가 여인 왕생의 본보기로서 기뻐한 것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물속에 빠진 매춘부였다는 그림 이야기(繪伝, 『蓮如上人西端伝記』3쪽 째.)와 관련이 있을 듯합니다.(『宗祖高僧繪伝(繪解き)集』, 『伝承文学資料集成』15, 1996년 5월, 三弥井書店刊) 이를 가부키로 만든 것이 『요메오도시다니(嫁威谷)』입니다. 초대 이치카와 우단지(初代市川右団次)의 연극으로 오사카 나니와 좌(浪速座)에서 초연, (1902년 1월 31일 초연), 우단지의 말에 의하면, (『요메오도시다니』에 관하여(『嫁をどし谷』に就て), 『歌舞伎』1907년 7월 1일 호), 1892년 5월, 이나리 좌(稻荷座:히코로쿠 좌(彦六座)를 계승)에서는 본 작품이 상연되었지만, 대표인 5대 째 다케모토 미다유(竹本弥太夫)가 권해, ‘바로 그 책을 빌려 3일 정도 사이에 급하게 준비한 것이 이 각본입니다. 그 후 오사카는 물론 교토, 고베에서도 상연하였습니다만, 언제나 급히 쓴 채로 특별히 손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했으나, 1907년 6월 2일부터 도쿄 메이지 좌(明治座)에서 상연했을 때에는 대사를 조절하고, 빗자루로 때리는 것을 담뱃대로 바꾸고, 가면을 상자에서 꺼내지 않고 쓰지도(辻堂)에 걸려있는 가면을 떼는 등, 여러 공리를 했던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렌노가 등장할 때는 전기를 이용하여 빛을 발산시켜 시대의 변화를 느끼게 했습니다.(『요메오도시

다니(嫁をどし谷)』의 틀(型)』 『歌舞伎』같은 호)

이어서 가면을 쓰지만 「살에 붙은 가면」은 아닌 문학작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 교겐 「누키가라(抜殻)」 『에이리 교겐 기(姦入狂言記)』(1660년 간행, 万治三)권1.

심부름을 보냈는데도 만취한 다로카자(太郎冠者)를 혼내고자, 상전이 다로카자의 얼굴에 도깨비 가면을 씌운다. 그런 줄도 모르고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도깨비로 변했다고 한탄하며 물에 빠져 자살하려고 하다가 가면이 벗겨진다.

- 교겐 「오바가사케(伯母ヶ酒)」같은 권2.

술집을 운영하는 아주머니의 가게에 술을 달라고 조르려고 간다. 술을 못 마시게 하자 도깨비 가면을 쓰고 위협하여 술을 얻어낸다. 가면을 쓴 채로는 술을 마실 수 없어 가면을 벗었는데, 그 상태로 자는 바람에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

- 교겐 「오니기요미즈(鬼清水)」같은 권5.

상전으로부터 다도를 행할 터이니 깨끗한 물을 퍼오라는 명령을 받은 다로카자는 앞으로 몇 번이고 심부름을 다녀와야 한다는 사실에 질려, 도깨비가 나타나 도망쳐 왔다고 거짓말을 한다. 상전이 물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자 곤란해진 다로카자는 도깨비 가면을 쓰고 ‘다로카자에게 부인을 바치고 술을 마시게 하라’고 요구하며 위협한다. 상전은 승낙하고 돌아왔지만 이상하게 여겨 다시 그곳으로 간다. 다시 다로카자가 나타나 위협하지만, 그 목소리로 도깨비의 정체를 깨닫고 가면을 벗겨 혼낸다.

- 하키타(노)안세이(萩田(野)安静) 필록 『도노이구사(宿直草)』(1677년 간행)권2의 7 「비슷한 것은 비슷하여 더욱 옳은 것이 되지 않는 일(似たるは似てさらに是ならざる事)」

젊은이들끼리 담력을 시험하고자 하는데, 도깨비가 산다고 하는 신사 기둥에 부적을 붙이게 된 한 남성이, 내심 무서워서 붉은 색을 입고, 도깨비 가면을 쓰고 간다. 한편 먼저 가서 놀라게 하는 역할을 할 젊은이가 심심해져

서, 흰 옷을 입고 산발한 채로 도리이(鳥居) 위에서 기다렸는데, 도깨비로 오인하여 그 짧은이 위로 떨어졌고, 다른 한쪽도 귀신에게 잡혔다고 생각하여 함께 기절한다.

『에혼 고칸덴(絵本考感伝)』의 해설에도 둘 다 기절한 예를 들어 두었습니다만, 이 외에도 있습니다. (후술)

- 조루리 「곤젠 소가(根元曾我)」(1698년 이전, 다케모토 좌(竹本座) 상연, 元禄十一, 주 22)  
가와쓰(河津)의 후실이 반야의 가면을 쓰고 소가 스케노부(曾我祐信)에게 몰래 찾아가 “반야의 가면을 모두 버리고, 잠자리에서는 하나가 되었다.(はんにやのおもてをかなぐりすて、ねやはひとつになりにはけり)”고 한다.(3단 제)
- 사나다 조요(真田増誉) 편 『메이료 고훈(明良洪範)』1686년-1704년경 성립(?) 도쿠가와 이에미쓰(徳川家光)는 어머니를 위해 일하는 고고노 쓰보네(古五の局)에게 마음을 주어 반야의 가면을 쓰고 매일 밤 그녀의 처소에 드나든다. 소문이 나서 관두었지만 고고노 쓰보네는 임신을 하고 만다. 어머니로부터 혼날 것이 뻔하여 이를 걱정하는 것을 보고 하인 이타미 겐로쿠(伊丹權六)가 이에미쓰를 대신하고자 하여, 가면을 쓰고 잡혀 책형(磔)에 처한다. 고고노 쓰보네는 이에미쓰의 이름을 대지 않아 화형에 처해진다.
- 에지마 기세키(江島其磧) 작, 우키요조시 「호조 도키요리 사키와케후타메자쿠라(北条時頼開分二女桜)」(1728년, 주23)  
쓰기사요고젠(月小夜御前 : 호조 도키요리(北条時頼)의 첩)의 임신을 질투한 다마토요히메(玉豊姫 : 역시 도키요리의 첩)의 어머니가 귀녀의 가면을 쓰고 저주하지만, 아키타 겐스케(秋田元助)에게 방해받아 자살한다.(권5의 1, 3)
- 도미카와 후사노부(富川房信) 그림, 구로본 아오본(黒本青本) 『귀녀 가면 북부쿠 이야기(鬼女面福富貴草)』(1771년 간행, 주24)  
가면을 만드는 히젠 다로베(飛騨太郎兵衛)가 죽은 후, 부인은 미우라 가문(三浦家)을 모신다. 남겨진 딸 오코나는 가문의 수장 쇼에몬(庄右衛門)에게 맡겨진다. 오코나는 너무 외로운 나머지 만든 어머니의 닳은꼴 가면을 보고



외로움을 달랜다. 가문 수장의 조카인 고로조(五郎藏)는 오코나에게 차여 그 복수를 위해 어머니 가면과 도깨비 가면을 뒤바꿔 놓는다. 어머니의 얼굴이 바뀐 것에 놀라 오코나는 집을 나온다. 오코나는 미우라 가문을 향해 가지만 길을 잃고 도적을 만난다. 그러나 도깨비 가면을 써서 도적을 위협하여 난을 면한다.

옛날이야기 『고코자카(孝行坂)』(「도깨비 가면(鬼の面)」, 「고코자카(孝行坂)」)로서 일본 전국에 유포되었습니다만, 최인학의 『한국 설화 연구』에는 이에 상응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고단 「히라가타 기담 효녀 오사다(平瀨奇談孝女お貞)」(2대째 모모카와 자쿠엔(挑川若燕) 구연. 『분게이 구락부(文芸俱樂部)』1908년 7월 15일호)에서는 이바라키 현(茨城県) 다가 군(多賀郡) 오쓰(大津)의 어부의 딸 오사다(お貞)의 미담이 됩니다. 도박하던 젊은이가 놀라 돈을 두고 도망가서 이 돈을 모아 히라가타(平瀨) 경찰에 전하는데, 돈을 잃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돈을 받습니다. 이것이 나니와부시(浪曲)가 된 「효녀 오사다(孝女お貞)」입니다.(일본 나니와부시 연구회(日本浪曲研究会) 『다이혼 나니와부시 하쿠센슈(台本浪曲百選集)』권2. 1956년, 八こう社刊) 오사카 라쿠고에서는 「도깨비 가면(鬼の面)」으로, 이케다(池田)의 시골에서 오사카의 가면 가게에 아이를 봐주러 온 사람이 주인공이고 고단(講談)과 유사합니다. 고샤쿠(講釈)의 원화로 1977년 경 가쓰라 자쿠사부로(桂雀三郎)에 의해 연기되었습니다.(아이바 아키오(相羽秋夫) 『現代上方落語便利事典』1987년 7월, 少年社刊)

- 나미키 고헤이(並木五瓶) 작, 가부키 「소데니쓰키 반슈 메구리(袖簿播州廻)」(1778년 3월, 오사카, 가도노 시바이(角の芝居) 상연, 주15)  
유미야 다로(弓矢太郎)가 여우 가면을 쓰고 귀신을 쫓기 위해 성내로 들어간다. 오키히라(沖平)도 유미야 다로를 위협하고자 도깨비 가면을 쓰고 함께 성내로 들어간다. 서로의 모습을 보고 깜작 놀란다. 이때 비명에 놀라 일어난 가코가와 산페이(加古川三平)가 양쪽 가면을 바꿔 씌운다. 이때 대포 소리가 들려 두 사람은 눈치 채고 산페이는 잠자는 척 한다. 도깨비 가면을 쓴 다로를 보고 놀라 안으로 도망간다. 다로는 세숫물에 비친 자신을 보고 자신이 도깨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조루리 「호조 도키요리 기(北条時頼記)」에서 언급하고, 검은 머리로 바꾸고) 코 푸는 종이로 얼굴을 문지르자 가면이 벗

겨진다.(두번 째)

함께 기절하는 예로서 『에혼 고칸덴(繪本孝感伝)』의 설명문에서 언급했습니다.

- 류테이 다네히코(柳亭種彦) 작, 고칸(合卷) 『니시키노오비 나조라헤무겐(錦帶准無間)』(1813년 간행)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重信) 그림.  
 때는 아시카가 요시토키(足利義時) 집권 시절. 스오노쿠니(周防国) 세키토(関戸)의 유녀 고바이(紅梅)는 질투가 심했다. 이 때문에 시아주버님인 가면 파는 세이헤이(箒平)가 파는 귀녀의 가면을 쓰고, 나루타키 고타로(鳴瀧小太郎)와 약혼한 사이인 시호기(しほ木)를 위협하고자 하다가, 세이헤이의 손에 죽는다. 그런데 그 가면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 ‘제 머리모양을 앞 머리 있는 남자 머리 모양으로 만들어 고타로님을 대신하여 적의 포위를 풀고 자 고타로님의 손에 죽습니다.’

세이헤이는 3대째 반도 미쓰고로(坂東三津五郎)가 연기했습니다. 고타로는 3대째 오노에 기쿠고로(尾上菊五郎), 고바이는 2대째 이치카와 덴노스케(市川田之助) 등의 얼굴과 닮은꼴입니다.

- 류테이 다네히코 작. 고칸 『니세무라사키 이나카젠지(修紫田舎源氏)』5편(1831년 간행)  
 시노노메(凌晨)가 귀녀의 가면을 쓰고 후타바노우에(二葉の上)의 원령으로서 나타나, 아시카가 미쓰우지(足利光氏)를 덮치려다가 실패하고, 스스로 가면을 버리고 자살한다.

다네히코는 앞에서 말한 『사키와케 후타메자쿠라(開分二女桜)』를 읽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고단(講談)입니다.

- 와카바야시 자쿠엔(松林若円) 『렌노 스님 일대기(蓮如上人一代記)』(1902년 7월, 中川玉成堂刊)  
 전 18석 중에 15석 후반, 16석 전반이 「살에 붙은 가면」에 해당됩니다만, 진종 오타니 파(真宗大谷派)의 참무(參務) 이시카와 순다이(石川舜台)의 서간

을 내세워 권위를 부여하고, 「괴담을 배척」하는 입장을 취하는, 소위 개량 고단(講談)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가면이 벗겨진 것은 시어머니가 고승의 말에 창피해하고 얼굴을 붉혀 체온이 올라가 야교가 녹았기 때문이라는 과학적(과학적이라고 하기도 이상합니다만)인 해석을 부여하고 있는 점입니다. ‘기행괴사(奇行怪事)를 전하여 살에 붙어 살에 붙은 가면이라고 합니다만, 정설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자와 히데아키(吉沢英明) 씨의 대작 『고단 작품사전(講談作品事典)』(2008년 10월 간행, 고단 작품사전간행회 간행)에는 모모카와 미노루(桃川実) 「아오이노우에 명공의 고심(葵上名工の苦心)」(『호치신문(報知新聞)』1902년 6월 6일부터 24일까지) 등에 다양한 「살에 붙은 가면」에 관한 고단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 6대째 이치류사이 데이잔(一龍齋貞山) 「살에 붙은 가면(肉附の面)」(『분케이 구락부(文芸倶楽部)』1909년 1월 15일 임시증간호)  
간제이 가문(觀世家)의 중요한 보물인 ‘살에 붙은 가면’의 유래. 1644-1648(正保)년 경에 가면을 만드는 겐고로는 명인이었으나 술꾼이었다. (연말의 채무 때문에)12월 28일, 부인이 투덜대자 3년간 방치해 둔 간제타유(觀世太夫)가 주문한 반야의 가면을 만들어, 하나뿐인 아들 겐노스케(源之助)에게 배달을 시켰다. 그런데 술버릇이 나쁜 다유(太夫)는 상대가 비열하게 돈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이자 가면을 깨뜨려서 돌려보낸다. 겐노스케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겐고로는 끌로 자살한다. 이후 아들 겐노스케는 나날이 정진하여 이름을 높여 이윽고 다유로부터 반야 가면의 주문을 받는다. 아버지가 쓰던 끌로 가면을 완성했다. 다유가 정월 연기 시작할 때 이 가면을 썼는데 벗겨지질 않았다. 사정을 듣고 겐노스케에게 사죄를 하자 가면이 벗겨져, 피는 흘렸지만 무사히 새해 첫 연극을 마쳤다.

나니와부시에서는 현재, 이 이야기를 아즈마야 산라쿠(東家三楽)가 「명공 이대(名工二代)」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줄거리는 데이잔과 유사합니다만, 간제다유는 자신의 죄를 사죄하고 겐고로의 묘 앞에서 머리를 밀고 유배하게 되는 결말이 다릅니다. 라쿠고에서는 고킨테이 기쿠치요(古今亭菊千代)가 자신의 작품 「렌노모노가타리 도깨비 가면(蓮如物語鬼の面)」을 이야기 합니다.

영화에서는 신도 가네토(新藤兼人) 감독, 각본의 「도깨비 모습(鬼姿)」(1964년 공개, 근대영화협회, 동경영화 배급)가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시대(1467년에

일어난 오닌(応仁)의 난 이후 약 백년간, 미망인이 된 며느리는 아들의 친구와 연인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를 질투한 시어머니가 반야의 가면을 쓰고 며느리를 공포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가면이 벗겨지지 않아 며느리가 손도끼로 벗긴다'는 전개입니다. 정토진종(浄土真宗) 혼간지 파(本願寺派)가 장악하고 있는 히로시마 출신의 신도 감독은, 어머니가 어릴 적 배계 말에서 해준 이야기로 '살에 붙은 가면'을 알게 된 것입니다만, 가면이 피부에 눌러 붙어 벗겨지지 않아 시어머니가 '아아, 아파, 아파.'라는 부분을 듣고는, 어머니의 가슴팍을 파고 들었다고 합니다.(주26)

그럼 「살에 붙은 가면」을 그려낸 궁극의 작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후지코 후지오(藤子不二雄)의 만화 「닌자 핫토리 군(忍者ハットリくん)」입니다. 핫토리 군의 얼굴은 가면이라 작자도 그 진짜 얼굴을 모른다고 하니까요. 그럼 저도 핫토리 군처럼 '닌, 닌.'하면서 이렇게 물러나고자 합니다. 긴 시간 들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주

1. 「여성의 포크로어(女性のフォークロア)(五)」(『野州国文学』2009년 3월호)
2. 『대계진종사료(大系真宗史料)』전기편(伝記編)6 (2007년3월, 法蔵館刊)의 해설. 아오키 가오루(青木馨) 「전승과 구적의 성립(伝承と旧跡の成立)」
3. 줄고 「요메오도시의 가면 여문(嫁威しの面余聞)」(『大法輪』, 2001년10월호)
4. 스기와라 다케오(杉原丈夫) 편 『에치젠 와카사의 전설(越前若狭の伝説)』(1970년 2월, 松見文庫刊)의 「서문」에 지명의 읽는 법을 『국토행정구획총람(国土行政区画総覧)』에 의했다고 하나, “『총람(総覧)』의 읽는 법에는 현지의 발음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고, ‘요시자키(吉崎) 등을 예시하며, “전후지명의 읽는 법이 합리화된 경향이 있기에, 일부러 정정하지 않고 『총람』 그대로 두었다.” 고 한다. 소견의 국토지리협회(所見の国土地理協会) 『국토행정구획총람(国土行政区画総覧)』(2002년4월, 新訂台本, 第一法規出版刊)에는 가제식(加除式)(2005년11월 加版)으로 ‘요시자키(吉崎)’라고 되어 있다.
5. 후지시마 히데다카(藤島秀隆) 「요시자키의 요메오도시(살에 붙은 가면)의 전승(吉崎の嫁おどし(肉附面)の伝承)」(『金沢大学語学・文学研究』1989년 1월호.)
6. 후지모토 요시마사(藤本良政) 외 『살아있는 민속탐방 후지이(生きている民俗探訪福井)』(1984년 1월호)
7. 고바라 데쓰로(河原哲郎) 「에치젠 바바 슈센 절의 역사적 추이(越前馬場手泉寺の歴史的推移)」(다케세 시게오(高瀬重雄) 편 『히야마, 다테야마와 히무로 수험도(日山・立山と比陸修験道)』, 「산악종교사 연구 총서(山岳宗教史研究業書)」10. 1977년 9월, 名著出版刊)
8. 구보타 준(久保田淳) 『중세문학의 세계(中世文学の世界)』(1972년3월, 東京大学出版会刊)

9. 고지마 다카유키(小島孝之) 교주(校注) 「간쿄노도모(閑居友)」(『新 日本古典文学大系』40, 1993년11월, 岩波書店刊)
10. 야노 기미카즈(矢野公和) 「참회의 가치도 없는 생애에 대해서(懺悔の値打もない生涯について)」(『共立女子短期大学(文科)紀要』1978년 2월호)
11. 기고시 오사무(木越治) 「『다마스다레(玉すだれ)』에 대해서(『玉すだれ』をめぐる)」(『日本文学』1982년7월호)
12. 후지 아키오(富士昭雄) 「우게쓰모노가타리의 구상(雨月物語の構想)」(『近世文芸』1969년 6월호)
13. 미노베 시게카쓰(美濃部重克) 「무로마치 모노가타리의 삽화 소고(室町物語の挿絵小考)」(『南山国文論集』1978년2월호)
14. 사와이 다이조(沢井耐三) 「오토기조시 『이소자키』고(お伽草子 『磯崎』考)」(가와구치 히사오(川口久雄) 『고전의 변용과 신생(古典の変容と新生)』, 1984년11월, 明治書院刊)
15. 하나사키 가즈오(花咲一男) 「젠류 에도의 도깨비들(川柳江戸の鬼たち)」(1987년6월, 太平書屋刊)
16. 야마다 가즈토(山田和人) 「『온나다이묘 엔젠노』와 나카무라 시치자부로(『女大名門前能』と中村七三郎)」(『近世文芸 研究と評論』1999년6월호)
17. 도리이 후미코(鳥居フミ子) 『근세 예능의 연구(近世芸能の研究)』(1989년, 武蔵野書院刊)
18. 키쿠치 요스케(菊池庸介) 「실록과 예혼 요미혼(実録と絵本読本)」(『近世文芸』2007년 7월호)
19. 쇼센도(松泉堂) 『고서목록(古書目録)』(1872년 2월 간행)에 ‘敵討嫁威谷伝 元禄三年 越路散人著 上写本 三冊’이라고 적혀있다. 와세다대학(早稲田大学) 소장본에는 ‘元禄三曆中夏下旬’의 서문이 있는데, 저자명이 없고, 내제(内題) 「가타키우치카이코쿠텐(敵討嫁威谷伝) ’이라고 읽는 법이 있지만(권1 등), 야토시립본(八戸市立本)에는 없고, 야토시립본에는 권7이 와세다 대학소장본 권6으로 되어 있다.
20. 렌노와 관계되지 않는 것은 대사에서 렌노의 이름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일까? 신란의 경우, 1672년(寛文12) 11월 6일, 히가시 혼간 절(東本願寺)의 제소를 받고, 교토마치부교(京都町奉行) 노세(能勢) 휴가(日向) 지방관은 신란과 관련된 가나조시(仮名草子), 조루리본(浄瑠璃本)의 규판을 명하였고, 그 때까지도 신란이 등장하는 조루리는 흥행중지에 몰려있었다. 막부도 1852년 11월, 이치무라 좌(市村座) 가오미세 가부키(顔見世興行の歌舞伎) 「하나와산 신란덴 곤키(花和讚新羅伝記)」도 8일제에 상연 금지 당했다.(演劇博物館 『江戸芸居番付朱筆書入れ集成』, 1990년 2월) 신란이 무대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이다. (후술) 렌노를 다루는 것도 신란과 비슷했다고 생각되는데, 실록체 소설의 경우는 이유가 미심쩍다.
21. 가고야 마치코(籠谷真知子) 『진종문화사의 연구(真宗文化史の研究)』(1895년 2월 간행, 京都女子大刊)
22. 이노우에 가즈토(井上和人) 「『간카쓰 소가모노가타리』의 소재(『寛濶曾我物語』の素材)」(『国文学研究』1997년 10월호)
23. 오야쓰 사나에(大谷津早苗) 「『호조 도키요리 사키와케 후타메지쿠라』(『北条時頼開分二女桜』)」(『昭和女子大学大学院 日本文学紀要』 1993년 3월호)
24. 미즈타니 후토(水谷不倒) 『구사조시와 요미혼 연구(草双紙と読本の研究)』(1934년 1월, 駿南社刊)
25. 하기타 기요시(萩田清) 「가부키와 여러 예능(歌舞伎と諸芸)」(『岩波講座歌舞伎・文楽』4권, 1998년10월)
26. 「오니바바 창작 노트(鬼婆創作ノート)」(『신도 가네토의 영화 저작집(新藤兼人の映画 著作集)』1권, 1970년4월, ポリエ企画)“이 살에 붙은 가면 이야기는 진종(真宗)의 범화이다. 혼간지(本願寺) 8대 주지승 렌노 스님이 만든 것이라고 전해진다. 렌노 스님은 드라마 라이터로서도 대단했다. <살에 붙은 가면>의 간결한 기승전결의 전개를 보면 알 수 있다. 가족 중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한 것은 해안이다.”

[追記] 발표 후, 사에키 다카히로(佐伯孝弘), 하라다 지로(原田二郎) 씨로부터 교시를 받았습니다. 이를 첨가해 두었습니다. 「렌노 전설과 시키테이 산바 작 『가타키우치 요메 오도시다니』(蓮如伝説と式亭三馬作 『復讐娶誑谷』)」를 집필할 때 신세졌던 여러분들께 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 江戸文学の多様性

－「肉付きの面」を通して見る－

延広真治

高麗大学校(大韓民国ソウル)日本研究センター主催国際シンポジウム「日本近世文学・文芸の中心と周縁」基調講演(二〇〇九年九月十八日)

只今御紹介に預かりました延広です。昨日久し振りに金浦空港から市内に入りましたが、ソウルが美しく変貌を遂げたことに驚きました。荒涼としていた塵(ごみ)捨て場の蘭芝島が、緑豊かな公園やワールドカップ競技場となっているではありませんか。「牛山之木嘗て美なりき」(告子章句上)と、牛山の荒廃を歎じた孟子に、蘭芝島の現況を見せたいものです。きっと「蘭芝島、今は美なり」と、韓民族の仁義の心を嘉(よ)みするに相違ありあません。明日は、地中より掘り起した清溪川との初対面を果たすつもりです。その清溪川上(じょう)の高速道路を公用旅券を携帯して疾駆したのは、一九八六(パリュック)年、二十数年前となりました。韓国外国語大学校大学院に出講しまして、崔在喆教授初め多くの方々の御好意により憶い出多い十箇月を過ごすことが出来ました。何しろ初の外国でしたので、見るもの、聞くものの総てが新鮮で驚きの対象でした。こういう日々の連続を青春というのでしょうか。と申しましても四十七歳、子供が二人という遅過ぎる青春でしたが。

ソウル滞在中の思い出に残る出来事の一つが、この高麗大学校にお招き頂いたことです。ところが講演の当日、風邪(かぜ)を引きましたため、延期して頂か

ざるを得なくなり御迷惑をおかけ致しました。熱が高かったものですから崔教授に病院に連れて行ってもらいました。そうしますと、お医者さんに「お尻を出せ」と言われました。風邪と臀部の相関関係が解らなかったのですが、逆らえませんが、その通りにしましたら、パチンと叩かれました。不審に思っておりましたら、「終わりました」とのことでびっくりしました、注射を打たれたとは全く気付きませんでした。叩かれたのは痛いのですが、注射は痛くなかった。これが日本ですと普通は腕にします。 医師から先ず「チクリとします」と警告が発せられまして、患者はズット針が入るのを見ているわけですね。「針が入った、チクリとした、注射液が入った、終わった、痛かった」という順になります。つくづく両国の文化の違いを感じました。こういう経緯がありまして、漸く講演が実現しました。場所は文科大学の大教室で、こことは違いますが、それを聞いて下さったのが当日の学生、今の崔官教授です。その崔官博士は今やアジアを代表する日本学者と成り、この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を開催して下さいました。誠に感無量です。

また崔官教授は十年ほど前にも、お招き下さいまして、ともに今回のシンポジウムに参加されている、崔京国教授や李潯燮教授と旅行を楽しみました。その時、「どこに行きたいか」と尋ねられましたので、先ず第一に河回を挙げました。先ほど申しましたように、八六(バリュック)には子供と一緒にしたので、余り旅をしませんでした。未だに仁川(インチョン)を知りません(この会場は仁村(インチョン)記念館ですが、日本人にはチョンの聞き分けは至難ですね)。ただ夏休みに家族で済州島や慶州を訪れましたのが大旅行で、この際も金順姫教授などのお世話になり、無事に終えることが出来ました。韓国最高峰の漢拏山に登りましたのは自慢の種です。河回を希望したのは勿論、仮面劇の村だったからです。実は私は「肉付きの面」という昔話に関心がありまして、曾て『江戸文学』二十号(一九九九年六月刊)に「蓮如伝説と式亭三馬『復讐娶讒(かたきうちよめおどし)谷(だに)』」を発表しました。今日はその改訂版の積りなのですが、是非とも韓国の方々に、お教え頂きたいものですから。

この「肉付きの面」は、日本の各地に分布しています。仮面を付けたところ顔から取れなくなり(仮に仮面不離譚と呼んでいます)、神仏の力などで漸く離れるというのが基本型で、殊に蓮如上人(一四一五-一九九九年、応永二十二~明応八)



の吉崎布教時代(福井県あわら市。一四七一年―七五年、文明三年―七)の法力譚として知られています。蓮如に帰依している息子夫婦の吉崎通いを止めさせようと、姑が鬼の面を付けて嫁を脅して面が取れなくなるのですが、関敬吾『日本昔話大成』八卷(一九七九年八月、角川書店刊)には、アールネ＝トンプソンの分類による話型「狡猾な牧師」の例話を次のように訳しています。

貧乏な男が金を発見する。貪欲な牧師が羊の皮をかぶって悪魔を装い、その男を脅かして金を取ろうとする。ところが家に帰ってもその皮が取れない。

欧米には広く分布しているようです。ところが崔仁鶴博士『韓国昔話の研究』(一九七六年九月、弘文堂刊)には、「肉付きの面」に対応する韓国の昔話を「嫁と姑との葛藤」とし、次のような例を挙げています。

憎み合っている嫁と姑の隣に住む婆が、「姑を早死させるのには栗を食べさせるとよい」と嫁に教える。そこで実行したところ、栗は姑の好物なので、毎日食べさせてくれる良い嫁だと言うようになり、嫁も姑を憎んでいたことを反省するようになった。

これは『日本昔話大成』では、「姑と毒殺」と題する話型に属し、「肉付き面」(「の」を表記しない)の次に配されています。講談「寺井玄溪」(「義士外伝」の内)では医者 玄溪が毒薬と偽って与えた粉薬で姑と嫁は円満となり、落語「里帰り」では実家の父が饅頭(うどん)粉を娘に与える役回りになります。確かに蓮如に関わる伝承には「嫁と姑との葛藤」が含まれますが、韓国で「肉付きの面」にならないのが残念です。一方、中国では丁乃通『中国民間故事類型索引』(一九八六年七月、中国民間文芸出版社刊)を手懸りに検索しますと、九七七年(太平興国二)成立『太平広記』四百三十三巻の「僧虎」(『高僧伝』)を得ます。つまり、虎の皮を破って人を脅かし、逃げる際に棄てていった物を得て生活していた僧が、遂に虎となったというので、「狡猾な牧師」に類似します。欧米にも二つの隣国にもある「肉付きの面」の類話が、仮面劇の国、韓国にないのは納得できません。きっと有る筈です。しかし真に無いならば、なぜ無いのかをお教え頂きたいのです。

さて野村敬子氏によりますと、「吉崎御坊が教化布教にと考案した『肉付きの面』には、古い文芸要素に加え福井県下の『お面さま』行事や信仰基盤、特に地域に絶大な影響を持つ白山信仰を吸収して構成されていた」そうです(注一)。「古い文芸

要素』に関しては後述するとしまして、吉崎御坊は 一四七一(文明三)年七月二七日、蓮如創建。一五〇六(永正三)年八月六日、越前国守朝倉貞景の軍の勢により破却されましたが、現在は浄土真宗本願寺派吉崎寺(あわら市吉崎二丁目九百二)と真宗大谷派願慶寺(同吉崎一丁目三百二)の双方に「肉付きの面」が伝わっています。本来は一つの筈ですが他にも有り、合せて数箇所伝存しているようです(注二)。当然、信徒には疑念が生じますが、その際の僧の、あしらい方が松岡譲『法城を護る人々』中巻(一九二五年六月刊、所見本は一九二九年三月、第一書房刊)に活写されています。

嫁脅しの面は決して二つ切ちやごはせん。まして一つ切ちやなんぞ思つちやいけなぞや。(略)お前さん方始め、世の中の姑といふ姑、女といふ女、人間といふ人間の、その胸の中に、みんな一つづつもつてるんですぞつ。

思いがけなく複数の存在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のは、一九三三年十月二十日、別府航路屋島丸とともに海中に没した、願慶寺副住職携行の面です。同二十七日日付け『大阪朝日新聞』によると、実は模造品で、真物は本山の許可のない限り出開帳等には出陳しないとの住職談を掲載しています(注三)。なお吉崎の地元での読み方は「よっさき」(注四)。この蓮如の布教活動と対立関係にありましたのが古来よりの白山(はくさん)信仰で(注五)、三県(石川・岐阜・福井)の境に聳える名山を対象とする山岳信仰です。白山の名は四季を通じて見られる白く厳かな山容に由来し、御前峰(ごぜんがみね)(二七〇二メートル)には白山比咩(しらやまひめ)神社の奥宮が祀られています。真宗の立場から了貞の著した『二十四輩順拝図会』前(一八〇三年刊、享和三)二巻には、鬼女の面を押し当てた姑が「白山権現の命を蒙ふり、ただいまこれまで出でたるぞ」と、蓮如の許(もと)に通う嫁を感じたとありますが、一月十五日、南条郡南越前町 杣木俣(そまきまた)の白山神社で行われる、お面様祭りは、お面の表情で、その一年の吉凶を予感する(柔和に見えれば豊作など)神事だそうです。また勝山市村岡町滝波の区長宅で二月十一日に行われている、お面様は、翁の三面(翁・尉(じょう)・三番叟)を祀り、多幸と豊作と祈念する行事ですが(注六)、福井県大野郡教育会『福井県大野郡誌』(一九一二年六月刊)によると、一七一九年(享保四)成立の「縁起」には、一五八七年(天正十五)正月十一日に始まるとあります。なお、同書に紹介されている

『村誌稿』には、平泉寺(へいせんじ)で盗んだ面を被って踊った者の「顔皮に着き張て脱ぎしに顔を傷く」と見えますが、平泉寺は白山信仰の一大拠点で、明治初め(元年、一八六八)の神仏分離令により白山神社(勝山市平泉寺町)と改称、住職は還俗、平泉(ひらいずみ)姓(つまり平泉澄(きよし)博士の実家。注七)を名告ります。

以下、文学作品に触れたいと思います。先ず、嫁姑により鬼女となる例。

- 慶政 『閑居友(かんきよのとも)』(一二二二年成立、承久四)巻下の三、「うらみふかき女いきながら鬼になる事」(注八)。  
嫉妬により男を殺し、角が生えて鬼に化した女が人々に泣きながら懺悔した後、火中に跳び入り焼死。
- 「剣巻(つるぎのまき)」(屋代(やしろ)本 『平家物語』、『源平盛衰記』、慶長十五年(一六一〇)版古活字本 『太平記』など(注九)。  
嫉妬深い公卿の娘が貴船社に参籠し、妬(ねた)しと思う女を取り殺したく、生きながら鬼になして賜(た)び給えと祈誓を凝らす。顔に朱を差し身体に丹(に)を塗り二十一日間、宇治川に身を浸して望み通り鬼となる。
- 仮名草子 『七人比丘尼』(一六三五年刊。寛永十二)巻中の五(注十)。  
きく井殿の妻は京に上った夫が、美しい女性と同棲していると聞き、嫉妬心から、背には鱗、額には角が生え、眼光鋭く口は裂け鬼のようになったものの、行脚僧の導きで元の姿。
- 辻堂非風子作、浮世草子 『玉すたれ』(一七〇四年刊。元禄十七)巻二の三、「芦名式部が妻鬼女と成事」(注十一)。  
芦名式部大輔が御所警固の任を終え、遠江(静岡県西部)に戻る際、密かに連れ帰った妾が懐妊。これを知った妻は顔や身体にべにを付け、遂に出産後の妾を喰い殺し、深山に駆け入る。妾の子は成長して出家、鬼住む山に入り読経すると、継母の角は落ち元の姿に戻り尼となる。
- 都の錦作、浮世草子 『当世智恵鑑』(一七一二年刊。正徳二)巻四の一「江戸

疾婦(しつぷ)(左側振り仮名、ねたみをんな)』(注十二)。

江戸神田の吹田(すいた)屋清兵衛が伊勢参宮より京に上り密かに連れ帰った妻が懐妊。これを知った妻は顔に燕(べに)脂を塗り、遂に出産後の妻を食い殺し、両国橋より入水。

いかにも、『玉すたれ』に拠っています。次は嫉妬により鬼女となる能で、角が二本の般若(「葵上」)や角のない橋姫(「鉄輪」)を懸けます。橋姫を使うのは、鉄輪に付けた松明(たいまつ)が角のように見えるからでしょうか。「鉄輪」の筋を以下に揚げます。

夫に棄てられた都の女が恨んで貴船社に丑の刻(とき)語りをしていると、社人から「松明を付けた鉄輪を頂き、顔に丹(に)を塗り、赤い衣を身に纏い、怒(いか)る心を持てば願いは叶えられる」との神託を聞く。一方、夫は安部晴明より「女の恨みで今夜中にも落命するかも知れぬ」と告げられ祈祷をして貰っていると、先の妻が鬼女となって現れ夫を連れ去ろうとするが、神々に追い立てられて退散。お伽草子「かなわ」では、晴明の降伏修法により夫への恨みを晴らせなかった鬼女は、その後、男女自在に変身して害をなすため、退治せよとの勅命が下ります。渡辺綱や坂田金時の太刀の威勢に敗れた鬼女は、「王城の鎮守たらん」と誓って入水。

今まで顔を赤く塗るなどして鬼女となる例や、面を懸けて鬼女となる能に言及しました。以下、面が離れなくなる作品を列挙しますが、自ずと近世文学の多様性がお解り頂けると存じます。『嫁威肉附之面由来』(吉崎寺。一六一〇年刊、慶長十五)、『嫁威肉附面縁起』(願慶寺。一六一一年刊、慶長十六)の縁起や絵解き、地誌類は特には取り上げません。では近世文学に先立つ、お伽草子を二例掲げ、続いて近世期の作品を取り上げます。

○ 赤木文庫本『伊吹山酒典童子』(注十三)。

嵯峨天皇の御代、延暦寺に酒典童子という美しい稚児が居たが、自らが打った鬼の面を懸けて鬼踊りをした。大酔して面を脱がずに寝たところ、そのまま

附着。恐怖心から近付く人も居ず、比叡山を追放され、大江山に隠れすむ。

○ 赤木文庫本『いそぎき』(注十四)。

下野の侍いそぎ殿は鎌倉から新しい女房を連れ帰り、新築の家に住まわせる。元の女房は新しい女房の顔が見たく、夫の留守に猿楽の鬼の面を借りて忍んで行ったところ十七・八歳の美女。嫉妬心が勃然と起こり部屋に乱入し打ち殺す。帰宅後面が取れず杖も離れず、山に行き忍んでいると、稚児学生(がくしょう)となっている息子が急を聞いて日光より下山。座禅を勧めたところ三七日の間に元の姿となる。

本作に関して特に強調したいのは、南方能楠「磯崎に就て」の発見です。無署名のまま長く忘れられていた原稿が公表されましたのは、中瀬善一『門弟への手紙—上松翁へ』(一九九〇年十一月、日本エディタースクール出版部刊)です。もし『全集』に収められていましたら、「肉付きの面」の研究は、もっと進んでいたと思います。同稿より得ました知識は極めて多く、遂一は記しませんが、是非お読み下さい。なお本作による近世初期成立の能に「磯崎」があります。(佐々木信綱『新謡曲百番』、一九一二年二月、博文館刊)同名ながら田中允『未刊謡曲集』一、続一(一九六三年九月、一九八八年九月、古典文庫刊)所収のは別曲です。これから江戸時代を中心にした作品群です。

○ 宇治加賀掾、浄瑠璃「源海聖人」天和(一六八一—一八四)頃。

武蔵の国の住人、藤原隆光には、妻花寿御前と遊女上りの妾月寿の前があり、花寿御前の弟に花若丸、月寿の前の子に月若丸いた。家督争いから、花寿御前の母は月若丸を疎み殺害を命じるが、身代わりとなった花若丸が落命、月若丸が後を追う。母は、これと言うのも月寿ゆえ、こどもの敵思い知れと、鬼の面を着けて威し鉄杖で打殺す。その後面が離れず鬼女となるが、源海聖人(陸光)の勧めで念仏を称えると、「しやうそう」の形となり光明輝く(四・五段目)。

○ 松明堂不角、月並高点付句集『若みどり』(元禄四年刊。一六九一)。

夜の更けるほど物すごく成

人妬む身は肉付の般若面

- 瓶月庵『笠付俳諧ぬり笠』(元禄十四年刊。一六九七。注十五)。  
はづかしや 着てはなれざる鬼の面ン

北条団水の点です。

- 歌舞伎『薄雪今中将姫』(一七〇〇年三月、江戸山村座。元禄十三。注十六)。  
花鳥の前は夫婦約束をしておきながら藺部衛門に騙されたのを恨み、神前に懸けてあった般若の面を取って冠と離れなくなるが、仏門に入った衛門が袈裟でなでると般若の面が落ちた(三段目)。
- 西沢一風作、浮世草子『女大名丹前能』(一七〇二年刊、元禄十五)。  
業平に扮う若き丹前之助(実は男色好きの老人)に心引かれた七十の老女が、孫の持て遊ぶ、お山(やま)の面と思い、鬼の面を誤って着け、本意を遂げるどころか離れなくなったので、箱根三社権現に嘆願し、子や嫁が光明真言を唱える間に、面が落ちる(巻六)。
- 西沢一風等合作、浄瑠璃「北条時頼記」(一七二六年四月八日、大坂、豊竹座初演。享保十一)。  
佐野源藤太に唆かされて嫉妬に狂う玉豊姫は、江ノ島弁財天の神前に懸けてあった鬼女の面を着け、北条時頼の胤を宿した月小夜姫を夜な夜な威し、遂に面が取れなくなる。幸い髻を切った時頼が経文を誦えると面が落ちる(四段目)。

岡本一抱子(近松門左衛門弟、医者)著の伝記『北条時頼記』(一六九一年刊、元禄四)に拠る作ですが、この伝記では、嫉妬の余り鬼女となります。三十数年後には、肉付きの面と変るのを、興味深く思います。また矢島首浦『本朝国語』(一七六三年刊。宝暦十三)巻五の三十一「江島の面」には、江の島弁財天の門に懸けてある鬼女の面は、時頼の妻が、妾を襲うとした際に被ったものとの伝承を記す。(「日を抱く話」『妹の力』、『定本柳田国男集』九。一九六二年、筑摩書房刊)。

- 土佐少掾、浄瑠璃「桜小町」(一七三四年成立。刊年未詳。享保十九。注十七)。  
かさねは業平に言い寄られるが、重ね妻にはならぬと振り付ける。業平が遊君都鳥と戯れている間に、三囲稲荷に参詣し、目に入った神楽の悪女の面を

懸け、業平に思い切らせようとして、取れなくなり狂乱。とど鐘铸(かねい)の勸進の僧に殺される(第三)。

○ 式亭三馬作、合巻『復讐娶詭谷』(一八〇四年刊、文化四)。

イ、(前編)北条高時が執権(一三一六—二六、正和五一正中三)の時代、重臣長崎入道の室緑の前は武芸を好み、上に倣って侍女も励み花崎(はなさき)と高科(たかしな)が抜きんでる。金蔵番の剣沢権平と浅瀬数馬は、各々「花崎を妻に」との願書を差し出すが、緑の前は数馬の望みを叶える。しかし数馬の継母鳴海は高科の讒言を信じ込み、花崎を威そうと鬼の面を、被って身を潜めていたところ、曲者と見た剣沢権平に刺し殺される。

ロ、(後編)「よめおとし谷」の地名の由来。肉付きの面に言及する。

イは肉付きの面とはならないか掲げました。ロは、先に触れた『二十四輩(よはい)巡拜図会』前編(一八〇三年刊 享和三)に拠ったと思われます。

○ 速水春暁齋作、読本『絵本孝感伝』(一八〇八年刊。注十八。文化五)

巻八「嫁威谷来由(よめおどしだにらいゆ)の話」の中に、地名の由来として、『二十四輩順拜図会』(既出)により蓮如伝が組み込まれています。ところが、読本の粉本と思われます南部家に関わる実録体小説『敵討嫁威谷伝』(写。南部家旧蔵。八戸市立図書館蔵。注十九)の巻七「嫁威谷来由の事」は次のような展開で、蓮如伝とは関わりません。つまり「谷を隔てて住んでいた両家の二人が結婚するが、姑の気に入らず、嫁は実家に戻される。密かに息子の許(もと)に通うのに気付いた姑は、鬼女の面を被って威そうとする。嫁も黒髪を乱して鏡を胸に掛け、白い布を引き摺るといふ恐ろしい姿なので互いに驚いて気絶した」。右を蒲生家の御家騒動に仕組んだ、辰岡万作作の歌舞伎「雪国(ゆきのなごころ)嫁威谷」(一七九九年八月八日より大坂、中の芝居。寛政十一)も、蓮如伝と肉付きの面とも交渉を持ちません。前年が蓮如三百回忌に当たっているのと関連する企画でしょうが、二の替り狂言(台帳)との予定が半分ほど遅れたのと、蓮如と関わらないのは結び付く可能性があるやもしれません。(注二十)。

○ 東西庵南北作、合巻『通人料理かしくの献立』(文政十年刊、一八二七)。

北条泰時が執権の代、神崎の遊君かしくは海賊の首領衛の闇蔵と契りを交わしたにも拘らず、闇蔵が他の女に心移して立ち退いたので、嫉妬の炎が鎮

まる時が無い。その跡を追ひ遂に越前の木の目峠の荒屋に棲み、昼は容色で迷わし、夜は鬼女の面を懸けて殺していたが、肉付きとなり取れなくなる。一遍上人の弟子西念が念仏を誦えると面は落ちる。

闇蔵は七代目市川団十郎、かしくは五代目岩井半四郎などの、似顔になっています。

- 素行堂松鱸編、『狂句むめ柳』十一(一八三六年刊、天保七)  
姑の開帳肉付のやう 土芳
- 『柳多留』百五十二篇、一八三八年(天保九)六月二日開、「扇橋居士追善会」。  
取れるので面目も無イ姫おとし 三朝  
岡田三面子『日本史伝川柳狂歌』(中西賢治校訂、一九七三年五月、古典文庫刊)  
には、「善光寺」の項の六に「肉付きの面」を立て、他に十句を掲げるが省略。
- 浄瑠璃「親鸞上人  
蓮如上人 弥陀本願三信記」一八八六年五月八日より三十三日、大阪、彦六  
顕如上人  
上演。注二十一)。

明治以後の項に掲げた方が良いでしょうが、ここに置いてみました。蓮如四百回忌は一八九八年に当たっていますが、その十三年前の一八八五年四月十一日から十四日まで山科別院で予修されたのに関連しての上演でしょう。粗筋を紹介しましょう。

十楽村に住む百姓の吉田与三治は元は侍、三国の女郎を請け出して世帯を持ったのが女房お清。子供由松の命日なので綿を御上人様に納めて下されとお清が講中に頼んだ後で帰宅した老母が、綿が無いので折檻の上離縁して追い出す。そこへ与三治が帰って来、お清を伴い家に入り母を宥めると、寝入る。その内にと夫婦で吉崎の上人の許へ行く。実は母は空寝で伝来の面を着け鎌を持ち、一人で戻ってくるお清を、我は白山権現の使いなりと威した上、鎌で殺し死骸を古池に投ずる。帰宅して面が取れず焦っている処へ与三治も戻る。そこへ大勢がお清の遺体を運んで来る。与三治が見ると身体は斬られた傷がなく、守り



袋の名号が切れており、お清は蘇生。呵責の念に耐えかねて母は鎌で自害。そこへ蓮如が金色の光とともに出現、老母は仏門に入れかし、共々に念仏せよと称名を唱えるや、面が落ち臨終。夫婦に念仏を怠るなど論し上人は都へ上る。

親鸞上人はじめ三人の高僧の名を堂々と掲げており、時代の変化を痛感します。全二十段の内、蓮如と関わるのは六段。眼目の十三段目は現在も、嫁威しの段として真桑(まくわ)文楽で上演されています。真桑は岐阜県本巣市上真桑。名産が真桑瓜。(韓国の真桑瓜は美味ですね。空気がカラットしているのと、辛さに慣れた口中を一新するからでしょうか)。お清を三国(みくに)の女郎とするのは、蓮如が女人往生の手本と喜んだのが、称名と共に入水した三国の売女であったとの絵伝(「蓮如上人西端伝記」三幅目)と関連がありそうです(『宗祖高僧絵伝(絵解き)集』、『伝承文学資料集成』十五、一九九六年五月、三弥井書店刊)。右を歌舞伎に仕立てたのが、「嫁威谷」。初代市川右団次の出し物で、大阪の浪速座で初演(一九〇二年一月三十一日初日)、右団次の言によると(「『嫁をどし谷』に就て」、『歌舞伎』一九〇七年七月一日号)、一八九二年五月、稲荷座(彦六座を継承)で本作が上演されたが、紋下(もんした)の五代目竹本弥太夫から勧められ、「早速其本を借受けまして、三日計の間に大急で拵へさせたのが、この脚本です。その後大阪は勿論京都神戸でも演りましたが、いつも書下(かきおろし)の俣で、別に手入を致しませんでした」が、一九〇七年六月二日より東京明治座で上演の際には、科白を刈り込み、箒での折檻を煙管に変え、面を面箱から出さずに、辻堂に掛けてある面を外す等、工夫した旨述べています。なお蓮如登場の際には電気仕掛けで光明を放させており時代を感じます(との字「『嫁をどし谷』の型」。『歌舞伎』同号)。

続きまして、面を掛けながら肉付きとはならない文学作品に触れたいと思います。(お疲れでしょうが、もう少し御辛抱下さい)。

○ 狂言「抜殻」。『姦入狂言記』(一六六〇年刊、万治三)巻一。

使いを命じたにもか拘らず泥酔した太郎冠者を懲らしめようと、殿が太郎冠

者の顔に鬼の面を付ける。そうとも知らず水に映った自分を見て鬼に変じたと嘆き、入水しようとして面が外れる。

○ 狂言「伯母ヶ酒」同卷二。

酒屋を営む伯母の店へ酒をせびりに行く。呑ませてくれないので、鬼の面を付けて威し酒をせしめる。面を着けたままでは呑めないで、外して膝に付けたまま酔って寝、正体露顕。

○ 狂言「鬼清水」同卷五。

殿から茶の湯をするので、野中の清水を汲んで来いと命ぜられた太郎冠者が、今後数々行かされるのは閉口と、鬼が出たので逃げ返ったと嘘を吐く。殿が清水へ行くと言うので困った冠者が鬼の面を付けて威し、冠者に所帯を持たせ、酒を呑ませと要求。殿は承知して帰ったものの不審に思い、再び行く。また冠者が出て威すが、声で鬼の正体に気付き、鬼の面を取り叱り付ける。

○ 荻田(野)安静筆録、仮名草子『宿直草』(一六七七年刊、延宝五)卷二の七「似たるは似てさらに是ならざる事」。

若者達の度胸試試しで、鬼の棲むという宮の柱に札を張ることになったものの、内心恐ろしい若人が赤い物を着、鬼の面を被って行く。一方、先廻りして脅かす役の若人も心細くなり、白い物を着、捌き髪で鳥居の上で待っていたが、鬼と見違えて若人の上に落ちたところ、化物に掴まれたと思い込み、共に気絶。

『絵本孝感伝』の解説にも、双方気絶の例を挙げておきましたが、他にもあります(後述)。

○ 浄瑠璃「根元曾我」(一六九八年以前、大坂、竹本座上演。元禄十一。注二十二)。

河津の後室が般若の面をつけて曾我祐信のもとへ忍んで行き、「はんにやのおもてをかなぐりすて、ねやはひとつになりけり」。(三段目)

○ 真田増誉編『明良洪範』。一六八六—一七〇四年(元禄)頃成立か。

徳川家光が母の大御台所に仕える古五の局に心を寄せ、般若の面を着けて夜毎に通う。噂になったので取り止めたものの懐妊。大御台所より勘気を蒙むるは必定と、気に病んでいるのを察した小姓伊丹権六が、身代わりを申し出、

その面を懸けて捕らえられ磔。古五の局は家光の名を明かさぬまま火刑。

- 江島其磧作、浮世草子「北条開分二女桜(さきわけふためさくら)」(一七二八、享保十三年。注二十三)

時頼

月小夜御前(北条時頼の妾)の懐胎をねたんだ玉豊姫(同じく時頼の妾)の母が、鬼女の面を掛けて呪咀するが、秋田元助に妨げられ自害(巻五の一、三)

- 富川房信画、黒本青本『鬼女富貴草』(一七七一年刊、明和八。注二十四)

面福

面打ち飛騨太郎兵衛没後、女房は三浦家に奉公。残された娘おこなは家主庄右衛門に預けられる。おこなは寂寥に耐えかねて打った、母の似顔の面をみて淋しさを慰める。家主の甥の五郎蔵は、おこなに振り付けられた腹癒せに鬼の面と掬り替える。母の顔が変わっているのに愕いたおこなは、家主宅を出奔。三浦家を目指すか道に迷い盗賊達に出会う。鬼の面を着け盗賊を威し難を免れる。昔話「孝行坂」(「鬼の面」「孝行坂」として日本中に流布していますが、崔仁鶴『韓国昔話の研究』に対応する話型はありません。講談「平濁孝女お貞」(二代目桃

奇談

川川若燕口演。『文芸倶楽部』一九〇八年七月十五日号。)では、茨城県多賀郡大津の漁師の娘お貞の美談。賭博している若者達が驚き金銭を置いて逃げたので、集めて平濁警察に届け出ますが、遺失人が名告り出ないので下げ渡されます。これが浪曲化されて、「孝女お貞」(日本浪曲研究会『台本浪曲百選集』巻二。一九五六年、八こう社刊)。大阪落語では「鬼の面」、池田の奥から大坂のお面屋へ奉公に来た子守りが主人公で、講談に類似。講釈種で一九七七年頃、桂雀三郎により演ぜられた(相羽秋夫『現代上方落語便利事典』一九八七年七月、少年社刊)

- 並木五瓶作、歌舞伎「袖簿(そでにつき)播州廻(めぐり)」(一七七八年三月。大坂、角の芝居上演。安永八。注二十五)

弓矢太郎が狐の面を着け、化物を退治しようと城内に入る。沖平も弓矢太郎を威そうと鬼の面を着け、同じく城内に入る。互いの姿を見て悶絶。その際の叫び声で起きた加古川三平が、互いの面を付け替える。そこへ鉄砲の音。両人は気付き、三平は寝入る。沖平、鬼の面をつけた太郎を見て驚き、奥へ

逃げ込む。太郎は手水鉢に映る鬼を見、自分が鬼になったと思い込み、(浄瑠璃「北条時頼記」に触れ、黒髪に代えて)延べ紙で面を撫でると取れる(二つ目)。

ともに気絶する例として、『絵本孝感伝』(既述)の説明文に触れました。

- 柳亭種彦作、合巻『錦帯准無間(にしきのおびなぞらへむげん)』(一八一三年刊。文化十)。

足利義時公の頃。周防国関戸の遊君紅梅は嫉妬に駆られ、義理の兄、面売りの箴平(おさへい)が売る鬼女の面を着け、鳴滝小太郎の許婚しほ木を威そうとして、箴平の手に懸って果てる。ところが、その面には以下のような含み状があった。自分の髪型を若衆風に作り、小太郎様の身代りとして敵の囲みを解かせ給わり度く、小太郎様の御手に懸って果てます。

箴平は三代目坂東三津五郎。小太郎は三代目尾上菊五郎、紅梅は二代目市川団之助などの似顔になっています。

- 柳亭種彦作、合巻『修紫田舎源氏』五編(一八三一年刊、文政十四)。  
凌晨(しのめ)が鬼女の面を懸け、二葉の上の怨霊として現れ、足利光氏(みつうじ)に襲いかかるが失敗、自ら面をかなぐり捨てて自害。

種彦は先述の『開分二女桜』を読んでいると思われます。

最後に近代のを駆け足で申し上げます。先ず講談。

- 松林若円『蓮如上人一代記』(一九〇二年七月、中川玉成堂刊)  
全十八席の内、十五席後半・十六席前半が「肉付きの面」に当たりますが、真宗大谷派参務石川舜台の書簡を掲げて権威付け、「怪談を排」するとの立場を取る、言わば改良講談です。興味深いのは、面が取れたのは、姑が上人の言葉に恥じて顔を赤らめ、体温が上がり、膠が溶けたためと科学的(と言うのも変なのですが)な解釈を施していることです。「奇行怪事を伝えて肉が付て肉付きの面だと申しますが、正説はこれであります」。なお、吉沢英明氏の大著『講談作品事典』(二〇〇八年十月刊、同刊行会刊)には、桃川実「葵上名工の苦心」(『報知新聞』一九〇二年六月六日より二十四日)など、種々の「肉付

きの面」に関わる講談が網羅されています。

- 六代目一竜齋貞山「肉附の面」(『文芸倶楽部』一九〇九年一月十五日臨時増刊号) 観世家重宝、肉附きの面の由来。一六四四-四八(正保)頃の面打ち源五郎は名人ながら大酒飲み。暮の二十八日、女房より愚痴をこぼされ、三年放置していた観世太夫注文の般若の面を彫り、一子源之助に届けさせた。しかし、酒癖の悪い太夫は金欲しさの卑しさが見えると、面を割って戻す。源之助より訳を聞いた源五郎は鑿で自害。以来源之助は日々精進し名を挙げ、遂に観世太夫より般若の注文を受け、父の鑿で彫り完成。太夫が正月御謡始めの前に懸けたところ取れない。事情を聞いて源之助に詫びると面が離れ、血は流れたものの無事に御謡始めを勤めた。

浪曲では現在、東家三楽が「名工二代」として演じます。筋は貞山所演に似ますが、観世太夫は己の非を詫び、源五郎の墓前で剃髪して廻国と、結末が異なります。落語では古今亭菊千代が自作の「蓮如物語鬼の面」を咄します。

映画では新藤兼人監督・脚本「鬼婆」(一九六四年公開、近代映画協会・東京映画配給)が知られています。「戦国時代(一四六七年に起こった応仁の乱以後の約百年に当たる)、未亡人となった嫁が、息子の友人と恋仲となったのに嫉妬した姑が、般若の面を付けて恐怖に陥れようとするが、取れなくなり嫁が鉈で割って外す」という展開です。浄土真宗本願寺派が「がちり」と押えている広島出身の新藤監督は、母親の寝物語で幼児の折に、「肉付きの面」を知ったのですが、面が皮膚にひっついて取れなくなった姑の「痛いよう、痛いよう」を聞くと、母親の乳房にしがみ付いたそうです(注二十六)。

では、「肉付きの面」を描いた究極の作は何でしょうか。それは藤子不二雄の漫画『忍者ハットリくん』です。何しろ、ハットリくんの顔は仮面で、真の顔は作者も知らないのだそうですから。では私もハットリくんのように、ニンニン、消えるでござる。御静聴有り難うございました。

## 注

- 一. 「女性のフォークロア(五)」(『野州国文学』二〇〇九年三月号)。
- 二. 『大系真宗史料』伝記編六(二〇〇七年三月、法蔵館刊)の解説、青木馨「伝承と旧跡の成立」。
- 三. 拙稿「嫁威しの面余聞」(『大法輪』、二〇〇一年十月号)。
- 四. 杉原丈夫編『越前若狭の伝説』(一九七〇年二月、松見文庫刊)の「まえがき」に、地名の振り仮名を「国土行政区画総覧」に拠ったとしながら、「『総覧』の読み方には、  
地の発音と少し違うと思われるものもある」と、「吉崎(よしざき)」等を例示、「戦後地名の読み方は合理化される傾向にあるから、あえて訂正せず、『総覧』のままとした」。所見の国土地理協会『国土行政区画総覧』(二〇〇二年四月新訂台本、第一法規出版刊)は加除式(二〇〇五年十一月加版)で、「吉崎(よしざき)」。
- 五. 藤島秀隆「吉崎の嫁おどし(肉附面)の伝承」(『金沢大学語学・文学研究』一九八九年一月号)。
- 六. 『福井県史』資料編15・民俗(一九八四年三月、福井県刊)。
- 七. 河原(こうばら)哲郎「越前馬場平泉寺の歴史的推移」(高瀬重雄編『白山・立山と比叡修験道』、山岳宗教史研究叢書)十。一九七七年九月、名著出版刊)。
- 八. 久保田淳『中世文学の世界』(一九七二年三月、東京大学出版会刊)
- 九. 小島孝之校注『閑居友』(『新 日本古典文学大系』四十。一九九三年十一月、岩波書店刊)。
- 十. 矢野吉和「懺悔の値打もない生涯について」(『共立女子短期大学(文科)紀要』一九七八年二月号)。
- 十一. 木越治「『玉すだれ』をめぐる」(『日本文学』一九八二年七月号)。
- 十二. 富士昭雄「雨月物語の構想」(『近世文芸』一九六九年六月号)。
- 十三. 美濃部重克「室町物語の挿絵小考」(『南山国文論集』一九七八年十二月号)。
- 十四. 沢井耐三「お伽草子『磯崎』考」(川口久雄『古典の変容と新生』、一九八四年十一月、明治書院刊)。
- 十五. 花咲一男『川柳江戸の鬼たち』(一九八七年六月、太平書屋刊)
- 十六. 山田和人「『女大名丹前能』と中村七三郎」(『近世文芸 研究と評論』一九九九年六月号。)
- 十七. 鳥居フミ子『近世芸能の研究』(一九八九年、武蔵野書院刊)。
- 十八. 菊池庸介「実録と絵本読本」(『近世文芸』二〇〇七年七月号)。
- 十九. 松泉堂『古書目録』(一九七二年二月刊)に「敵討嫁威谷伝 元禄三年 越路散人著 上写本 三冊」とある。早稲田大学所蔵本は、「元禄三曆中夏下旬」の序があるが、著者名を逸し、内題に「敵討嫁威谷伝(かたきうちかいこくてん)」との振り仮名があるが(巻一など)、八戸市立本には欠く。八戸市立本巻七が早大本では巻六となる。
- 二十. 蓮如と関わないのは、科白で蓮如の名を出せなかったためであろうか。親鸞の場合、一六七二年(寛文十二)十一月六日、東本願寺の提訴を受け、京都町奉行能勢日向守は、親鸞に因む仮名草子、淨瑠璃本の絶版を命じており、それ迄も親鸞の登場する浄瑠璃は、興行中止に追い込まれていた。幕末に至っても、一八五二年(嘉永五)十一月、市村座顔見世興行の歌舞伎「花和讃新羅(はなわさんしんら)伝記」も八日目に差し止められている(演劇博物館『江戸芸居番付朱筆書入れ集成』、一九九〇年二月刊)。親鸞が舞台に登場し得たのは明治に入ってである(後述)。蓮如の扱いも親鸞に準じたと考えておくが、実録体小説の場合、その理由は未審。
- 二十一. 籠谷真知子『真宗文化史の研究』(一九九五年二月、京都女子大学刊)。
- 二十二. 井上和人「『寛潤曾我物語』の素材」(『国文学研究』一九九七年十月号)。
- 二十三. 大谷津早苗「『北条開分二女桜』」(『昭和女子大学大学院 日本文学紀要』一九九時頼三年三月号)。
- 二十四. 水谷不倒『草双紙と読本の研究』(一九三四年一月、駿南社刊)。
- 二十五. 荻田清「歌舞伎と諸芸」(『岩波講座 歌舞伎・文楽』四巻、一九九八年十月)。

二十六、「鬼婆創作ノート」(『新藤兼人の映画 著作集』一巻、一九七〇年四月刊。ポ-リエ企画)。「この肉づき面の話は、真宗の法話である。蓮如上人(本願寺法主八代)がこしらえたものといわれている。蓮如上人はドラマ・ライターとしてもたいしたものだった。〈肉づき面〉の簡潔な起承転結の展開をみればわかる。家族の女の気もちをつかまえようとしたところが炯眼である」。

[追記] 発表後、佐伯孝弘、原田二郎氏より御教示を得ました。それを取込んでおります。「蓮如伝説と式亭三馬作『復讐娶証谷』」執筆の際、お世話になりました方々と合わせまして深謝致します。